



남아프리카공화국에 사는 세비실을 만나 보세요

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만나 보세요.



세비실에 관한 모든 것

나이: 8살

사는 곳: 남아프리카공화국 가우텡

언어: 영어와 줄루어

목표와 꿈:

- 1) 연차 대회 듣기
- 2) 프로 체조 선수 되기



가족: 세비실, 엄마, 아빠, 언니 두 명, 오빠 한 명

출처: 리사 윌슨

세비실의 도움의 손길

세비실은 무척 쑥스러움이 많은 학교 친구가 한 명 있어요. 반 아이들이 밖에 나가 놀때,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랑 놀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세비실이 그 친구에게 함께 놀자고 말했어요.

세비실과 가족들은 금식주 일요일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해요. “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면 마음 안쪽이 행복해요.” 세비실이 말했어요. “구주께서 하실 것 같은 일을 하는 걸 좋아해요. 성신이 주시는 마음속 따뜻한 느낌을 좋아해요.” ●



세비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,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줌으로써 예수님을 따릅니다. 다음 장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생각하신 이야기를 읽어 보세요.

세비실이 좋아하는 것

장소: 놀이공원



예수님 이야기: 예수님이 얼마 안 되는 떡과 물고기로 5,000명을 먹이신 이야기



초등학교 노래: “니파이의 용기”(『어린이 노래책』, 64~65쪽)

음식: 코타(칩과 소시지, 치즈를 곁들인 빵)



색깔: 하늘색



학교 교과목: 생활 기술



도움의 손길 팀에 들어오세요!



누군가에게 봉사할 때 여러분은 이미 도움의 손길 팀인 거예요! 여러분은 누구에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?